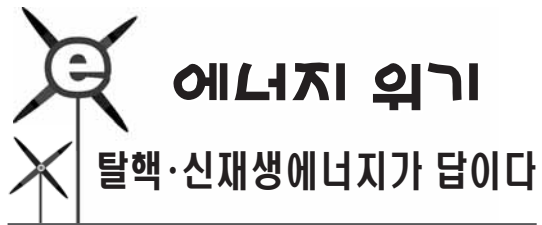


# 국민은 '원전공포' 여전... 日정부는 재가동 채비



## ⑥ 원전 위기 日 현장을 가다 -후쿠시마 사고 후의 선택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를 방사능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후쿠시마의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찾은 도쿄의 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2년 전 사고에 대해 걸음으로는 무덤덤한 것처럼 보였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는 기자에게 "그 곳 상황이 어떠한가요, 정말 심각하단가요"라고 물으며 각별한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평온을 되찾으려는 의지 속에 또다시 닥쳐올지 모를 위험을 걱정하는 마음이 함께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끝을 기약할 수 없는 피해지역에 대한 제염작업과 폐기물 처리, 꺼지지 않은 사고 원전에 대한 후속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건 사업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 올 복구 예산 4조3800억엔 편성

### 아베정부, 재건사업 차근차근 진행

### 국민 70% "원전 영구 중단해야"

### 탈원전 촉구 대규모 시위 확산 추세

일본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 중 4조3800억엔을 재해 복구를 위한 특별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16.1%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교통 인프라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지진 피해가 컸던" 동북부 지역에 봄날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일본의 진정한 봄은 아직"이라며 재건 사업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동시에 한동안 잠잠했던 원전 재개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이 그간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관련 업계와 유대감을 형성해 온 터라 당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인으로서 노골적이고 뻔뻔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예초 일본은 사고 직전 국내 전력 공급의 29%를 원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전 2기만을 가동하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일본은 일부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으나 지난해 정권을 잡은 아베 정부는 최근 가동을 멈췄던 원전의 재가동을 심의하는 등 원전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탈핵 시위 모습. (그린피스 재팬 제공)

며 전력위기를 극복했고, 2030년대 원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이른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안'이라는 에너지정책을 발표하

고 여론은 탈원전에 기울어 있어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한바탕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점차 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재개는 전기료 인상, 연료 수입 증대 등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LNG 등을 포함하는 화석 연료의 수입은 지진 발생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으며 무역 적자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또 도쿄전력을 비롯한 전력 기업들은 재산상 약화에 10% 내외의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민간의 거부감은 여전히 크

며 여론은 탈원전에 기울어 있어 원전 재가동을 둘러싸고 한바탕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점차 늘고 있다.

정부의 오염지역 관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오염 제거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염작업의 속도는 늦고 이에 따른 막대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최근의 한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국민의 70%가 원전 영구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남겼는지는 아직까지 추산하기 어렵다"며 "주변의 토지와 대기, 바닷물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오염을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시와키 그린피스 재팬 홍보담당은 "후쿠시마에 원전이 없었다면 지진(쓰나미) 피해를 복구하기가 더 쉬웠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원전 재개를 멈추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와 자연에너지 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쿄=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그린피스 재팬 다카다 기후변화 에너지 팀장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지금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 써야 하는지 관심이 커졌죠."

지난달 25일 도쿄 그린피스 재팬 사무실에서 만난 다카다(33) 기후변화 에너지 팀장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가 후쿠시마 사고의 최대 교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속속거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지난해 도쿄 시내에서 17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탈원전 집회가 열렸고 올해 3월에는 4만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원전 제로 정책을 촉구한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봤다.

## 산악지형 한국 원전 사고뎀

## 일본보다 피해 더 심각할 것

그는 또 오는 9월 현재 가동중인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예비정비에 들어가게 때문에 사고 이후 다시 한번 '원전 제로(0)'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원전 가동 없이 에너지 공급이 원활히 진행됨을 보여줄 수 있고, 원전이 멈췄을 때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이란다.

한국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을 멈추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은 지리적으로 바다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나면 대피하기가 어렵고, 방사능·오염수 피해도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전 폭발사고의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그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방사능 오염 등 앞으로 감내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반대로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한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고 있다는 것.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이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한 불안과 위기감으로 일본도 원전이 아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현재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주택용 전력 생산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가동되면 원전 2기(50기 중 원전 폭발 사고 후 원전 2기만 가동했음)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담양군 월산면 공장 대지 4882㎡(1477)건평 150평 대출 2억 법인이전환. 2억 7천만원
- ▶계림동 구 호텔건물 대지 542㎡ (164)건평 3968㎡(1200) 목욕탕,찜질방,객실38개 등 유 휴식시설 등 18억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 411㎡ (124)건평 327㎡ (99) 공시지가 2억 8200 매도 2억 9천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 (97)건평 1235㎡ (363) 건물 2층 공시지가 14억 5천 매도 16억 5천
- ▶월산동 목욕탕,원룸,투룸,대지 508㎡ (153) 건평 741평 병원,요양시설 등 적합 16억 5천
- ▶대인동 동부소방서부근 대로변 대지 694㎡ (210) 건물 158평 광주은행본점 부근 공시지기에 매도 11억 6천
- ▶북구 도로변 대지 624㎡ (189) 건물 421평, 병원,사육등 적합 은행 12억 매도 13억 5천
- ▶신안동 한방병원 대지 645㎡(195) 건평 372평 감정 16억 5천선 대출 11억 매도 13억
- ▶신항동 대지 301평 건평 715평 회사사육,병원노인시설 등 적합. 은행17억 보증금 4억 3천 월 1650만원선 매도 35억

**투자·나대지**

- ▶동구 수기동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83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각종협업가능 매도 8억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점 관리지역 2587평 공장,창고 등 적합 대출 1억6천 매도 2억 3천
- ▶합평동 월야면 13024평 전원주택개발적합 6억 8천
- ▶두암동 2중주거지 47평 대출 5천 매도 6천
- ▶광주와 담양을 사이 4차선 국도점 2111평 주유소,가스충전소 허가남 대출 10억 매도 12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 5가 광주고용센터 옆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건설팀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온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 440㎡ 감정가15억 최저가3억5천만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16억9천만 최저가1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동동 2중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 ▶서구 화동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9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 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사무실 토지3279㎡ 건물 1560㎡ 감정가1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야 3642㎡ 매매3,500만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7층)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3층)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4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10층) 보25억, 월 6500만원 매130억원
- ▶광산구 수원지구(5층) 보2억천, 월1390만 매27억원
- ▶광산구 신항동(5층) 보2억,월1040만 매19억원

**대지/답**

- ▶**금호동 계획도로점 자연녹지** 3,400㎡ 매32억원 (병원, 차고지, 대형기업, 정래예식장, 투자족적)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병원,시육)
- ▶**치명동 광산간도로 395㎡** 매14억원(병원,시육,전시장)
- ▶**생촌동 운천역부근 상업지** 845㎡ 매기25억 (시육,전시장,병원,도시형)

• 상가건물, 나대지 급구 •  
010-3753-0033

###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몰탈 등)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흥농공단  
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